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  
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  
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 답답함이 나오는 그 구멍에서 부처가 나온다!

우리가 부처님의 탄생일을 앞두고 이렇게 함께  
한자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와 도반으로서 이렇  
게 함께 갈 수 있는 마음들이 가득하고 정말 감사  
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전  
체 한마음으로써 스승에 대한 그 감사함을 올렸  
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고깃덩어리에 감사함을  
느끼진 않으셨죠? 여러분과 일체제불과의 마음  
이 우주 전체와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 더  
불어 너는 나를 보고 스승으로 삼고, 나는 너를 보  
고 스승으로 삼아 모두가 한마음으로서 둘이 아니  
게 감사함을 모두 올렸습니다.

이것은 역대로부터 오늘날의 스승의 감사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일체 만물만생 전체가 다, 물  
에서 사는 거든 보이지 않게 사는 거든 보이게 육  
지에서 사는 거든 허공에 돌아가는 별성이든 모  
두, 생명이 있는 거든 없는 거든, 보이는 거든 안  
보이는 거든 전부 풀 한 포기 돌 하나라도 스승 아  
닌 게 없으니 어찌 스승의 날을 나 혼자만의 스승  
의 날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맛있는 마음, 넓은  
마음으로써 더불어 같이 스승의 날입니다. 감사  
합니다. 오늘 더불어 같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날까지 길잡이로서, 더  
불어 같이 도반으로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신도님들 중에도 아  
마 삼분의 일은 해당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옛날에 부처님께서  
도 임신을 해서 어린애를 낳으면, 낳는다고 해서  
사람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 그 어린애가 잘 길러  
져서 어른이 돼서 앞뒤를 알고 또 현실에 고정됨  
이 없이 돌아가는 공(空)한 도리를 알아야만이 구  
경경계(究竟境界)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서 그때를 이룸해서 성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방편으로 말하자면 어  
린애를 축 낳는다고만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게 아  
닌 까닭에 어린애를 볼수록 낳은 거를 돈오라고 한  
다면, 우리가 낳아서 기르는 데 대해서는 점수라  
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돈과 점이 어찌 들어있  
습니까? 충실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  
람이라야만이 돈과 점이 들어 아니라고 할 수 있

뱅크 돌지 정신세계에는 감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 될 때까지 수행을 잘해서 누  
가 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 습성과 습기를 다 없앨  
으로써 어른이 될 수 있으니 잘들 깊이깊이 생각  
해서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마음 도리를 공부하고 가  
는데 한마음이다 한다면 마음 내기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커피를 담으려면  
이 그릇 들레를 말하는 거나 같습니다. '한마음'  
이런다면 마음을 내기 이전이기 때문에 평등사상  
의 공법 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계에 진출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짐승도 될 수 있고  
여하간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화할 확률이 있으니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람 노릇을 못하면 그만

가장자리가 없어 그냥 흘러내려요. 나는 눈을 지  
그시 감고 웃었죠. 왜 웃은 줄 아십니까? '억수같은  
은 빗방울이 수효가 없어, 헤아릴 수 없이 쏟아진  
다 하더라도 가족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구나! 가  
족 속은 범할 수가 없지! 절대!' 이런 겁니다. 첫  
째, 눈이 동그랗게 떠지고 둘째, 스트르 감아지고  
셋째, 웃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속에 빠져보  
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르며 그 도리를 모를  
겁니다. 어떤 것이 딱딱해 마다하지 않았고 받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세계에서 볼 땐 민신창  
이가 된 거나 마찬가지로 하지만 어떤 거든지 받  
아들이지 않았다면 내가 다 버릴 수가 없었다 이  
소립니다. 모두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체가 공  
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선을 해내서 우리가 살기 좋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뿐만 아니  
라 자기의 속에 들은 자생중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 돌아가면서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모든  
생명들의 마음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너  
고 나는 나고, 모조리 요건 잘못되고 요건 잘되고  
요런 걸 따지니 어떻게 피안의 저 세계로 점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아  
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그럽게 거기다가 놓고 '뿌리  
는 들이 아닌 까닭에 너나나나 만난 것이 바로 강  
통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  
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하는 것도 너밖에 없잖  
아!' 하고 거기다 놓고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으로써 습을 녹이고 관습을 녹이고, 업보를  
녹이고 유전성을 녹이고, 영계성을 녹이고 세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은혜가 아니  
었더라면, 부처님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본다면,  
그 모든 섭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따라 삼키기 위  
해서 얼마만큼 시련을 겪으셨으며 몸을 버렸습니  
까? 버려서 그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집어삼키고  
여러분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토해냈습니다. 또  
해하신 그런 도리를, 우리가 그 도리를 모르고 독  
바른 공부들, 마음공부들 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  
는 하나도 못 갖는 게 되고 자기 속의 무명의 은혜  
도 못 갖는 겁니다. 자비란,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동양 우리가 옳은 법을 펴고, 옳은 법을 알고 옳은  
법을 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만물만생의 은혜를  
갖고 일체제불의 은혜를 갖고, 모든 조상들에게  
은혜를 갖고, 그게 모두 들이 아닌 까닭입니다. 은  
혜를 갖는 겁니다. 은혜를 갖는 반면에 바로 자비  
가 그속에서 솟출 나옵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든지 눈을 부라리고 그냥  
약하게 툭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듣기 좋  
습니까? 좋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부 하는  
데는 때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약  
을 썼는데 말입니다. 그 약 쓴 게 어디서부터 나왔  
나 이겁니다. 그 약을 쓴 사람은 그 소리가 어디서  
부터 나왔으며, 그 약을 쓰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또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나 이겁니다. 어디  
서부터 나왔겠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  
니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롯해서 바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이 상대방을  
쳐가지고 상대방의 공이 다시 나한테 튀어오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를 원망하겠  
습니까? 마음을 넓혀서 항상 이 마음을 넓게 쓰고  
자비한 마음으로써, 알은 사람으로 매기단을 하  
려고 거지를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 그러므로 임  
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임신을 했어도 임신을 했던 말  
을 말아라. 어린애 낳았어도 낳았던 말을 하지 말  
라. 그래서 어린애를 기른다 하더라도 아주 인의  
롭게 길러라. 자비하게 길러라. 너 나가 원수지만  
아니 되느니라. 너 나가 거부감을 느끼고 저항력  
을 느낀다면 다 얻을 수가 없느니라. 다 얻어야 다  
토해낼 수가 있어서 일체 중생들을 하나도 빠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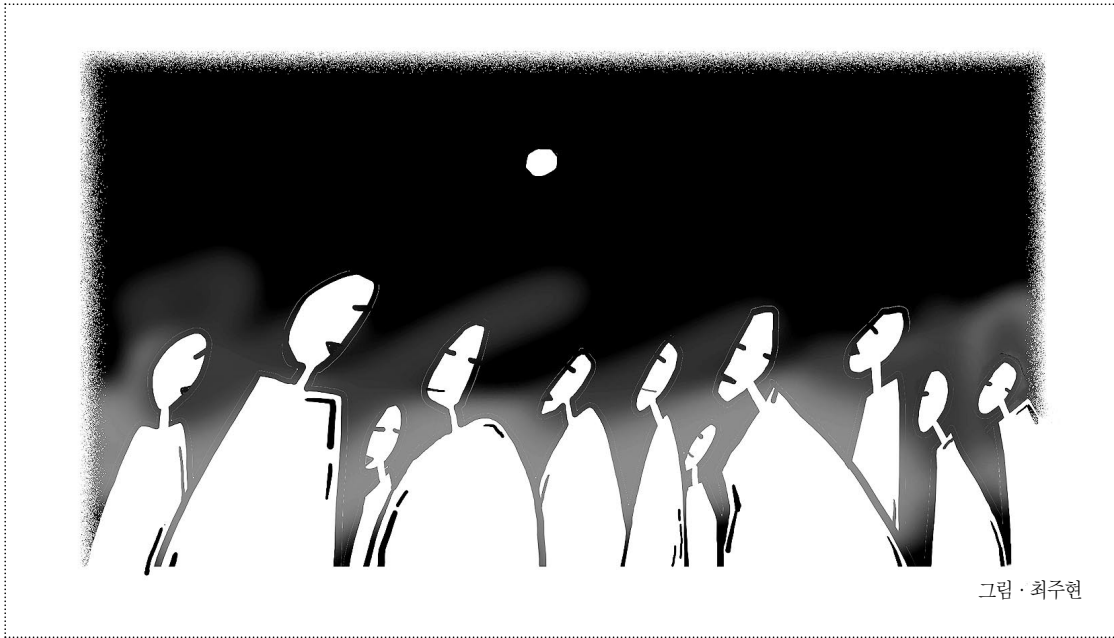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게 할 수 있었던가? 어떻게 별들이 마음들을 한데  
모아서 태양을 형성시켰을까? 태양이 형성되고  
나서 우리 생명들을 어떻게 조성해서 종자들 만  
들어서 살게 했을까? 또 우리가 스스로 지분을 해  
놓지 않고 태양을 다 받게끔 했을까? 스스로 마음  
으로 가려놓고 태양빛을 받지 못하게 된 거는 스  
스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 모두를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더불어, 한마음이 그렇게 지금 작용을 하  
고 또 발견을 하고, 과학자들이 발견하듯 발견을  
하고, 우리가 살면서 발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  
렇게 자꾸자꾸 물리가 타지고 진화가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 스스로  
나가고 어떠한 자체가 그대로 도며 그대로 참선  
이며 그대로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대답하시겠고 스님네들도 대답하시  
겠지만 대답한 것이 나오는 구멍에서 바로 부처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애를 뺐다 이런다면, 하허, 그  
런 무식한 말로 저분은 저렇게 말한다고 흥보했지  
만,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그  
말밖에 없습니다. 임신을 해서, 지금 여기 여러분  
이 있지만 임신을 하지 못한 분도 있고 임신을 한  
분도 있고, 나는 몇 개월 임신을 해서 됐다 이럴 수  
도 있고 안 됐다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모두 자신  
들은 내가 이런 소릴 하는 대로 직감적으로 알 겁  
니다. '몇 개월 됐구나!' 하고 말합니다.

또 자식을 낳아서 일곱 살이 됐어도 상당한 기간  
이 걸립니다. 일곱 살이 됐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  
다. 딸마 대사께서도 일곱 살이 돼가지고도 면벽을  
몇 년을 했습니까? 육조 선사도 십 년을 남게 면벽  
을 했다고 봅니다. 왜? 면벽은 벽만 쳐다보고 앉  
아 있는 게 면벽이 아닙니다. 나를 깨달아가지고,  
즉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어린애를 키우는 기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습을 버  
리고 습관을 자제해라, 생각을 넓게 해라 하는 겁  
니다. 세박에 무럭없이 내리니까, 아침 중생을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바탕 때려박더니 그  
냥 모두들 마구니까 쇠약하고 그러면서 여기 뒷  
덜미를 쥐어서 내쫓습니다. 그래 그날 비가 억수  
같이 쏟아졌는데 매패모자를 쓰고서 풀숲에 가서  
앉았더니 어떻게 비가 쏟아지는지 그 매패모자가

## 꼭 생명을 걸고 아예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성을 녹이고, 인과를 녹이고 말합니다. 이래야만  
이 자생중생들이 모두 성불을 하게 되거든요. 자  
생중생들이 성불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성불을 합니까? 들이 아닌 나인데.  
그래서 어린애를 낳아가지고도, 부처님 탄신  
일이니까 그날을 앞두고 알아듣기 쉽게 말하느라  
고 이런 얘길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얘기는 낳았으나 그것이 도가 아니니라.  
다가 아니니라, 얘기를 다 길러서, 과거와 미래를  
다, 현재 모든 거를 한데 합쳐 떡을 만들어서 찰나  
에 과거로, 찰나에 미래로, 찰나에 현재로, 찰나에  
떨고 가깝고가 없이 응신으로서 음해할 수 있어  
야만이 그것이 바로 너와 나와 들이 아니니라. 갖  
탄생을 했다면 넓게는 너와 나와 들이 아닌 까닭  
이지마는, 너와 나와 들이 아닌 까닭은 알더라도  
내가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뒤를 몰라! 그  
렇기 때문에 임신을 알기 위해서 모든 관습과 모  
든 습성을 다 때려내야만이 진짜 어른이 되느니  
라.' 이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얘길 하느라고 이렇니다.  
지금 난 현대 사람이니까 말합니다. 여러분도 현  
대에 태어나서 현대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현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드리는 게 부처님  
의 진짜 제자라는도 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  
니 여러분이 '어떡하면 과거에 살던 나를 임신을  
시킬까? 어떡하면 과거에 살던 나를 지금 나와 만  
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있다면 증명을 해  
보여라!' 하고, 일을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밥  
을 할 때나 뺨을 볼 때나 언제라도 관하여 거기다  
말고 하는 것이죠. 왜 악도 없고 선도 없느냐? 선  
이 없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도리를 공부를 안 한다면 안 하는 대  
로, 세세생생에 한 발을 빼지 못해서 자유인이 될

리지 않고 풀풀이, 천차만별의 중생들에게 다 응  
신이 돼서 모습을 바꿔가면서 응하느니라 이겁니  
다. 모습이 개 모습이라면, 그속에 들어가면 개바  
에 더 되겠어요? 예전에도 개가 병이 났다고 오고  
오, 소가 병이 났다고 오고, 닭이 병이 났다고 오  
고, 닭이 자꾸 미주알이 빠진다고 그리고 오고 뽕  
소리 다 들었습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다 죽  
게 됐다오 오질 않나 별소릴 다 들었지만 그거 나  
는 고양이도 보지도 않았고 개로 보지도 않았고  
소로 보지도 않았습니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테레비도 동물  
의 왕국인가 그런 것도 모두 보시죠? 기어 다니는  
게도 제 자식은 함부로 굴러기가 싫어서 그냥 자  
기가 먹어버리고 다시 배출을 해요. 자기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왜  
냐? 자기가 바로 그거니까요. 자기 몸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잘 알고 그 섭리에 대처를 해서 잘해  
나가는데 우리 사람들은 외려 미답해서 죽으면  
그냥 아주 죽는 줄 알고 그냥 매달리고 온통 야단  
법석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일단 오늘 죽으  
나 내일 죽으나 죽는 것이 겁이 안 납니다. 그게  
겁이 안 나야 뛰어난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죽느냐  
사느냐에 대해서 겁이 나면 뛰어난을 수가 없죠.

어린애를 배가지고 어린애가 9개월 됐다 어떻  
게 하고, 10개월이 돼서 낳았다 이런다면 그때엔  
쳐주는 길잡이가 참 필요로 합니다. 9개월째가 되  
면 어린애가 막 납니다. 발바닥을 치고 나오기  
직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감응이 되고 이  
리 치고 저리 찰니다. 그 이리 치고 저리 찰 때 말  
입니다. 이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아이구, 이런  
것은 뭐여 거기서 이렇게 시키는데 이것은 무엇

24면으로 계속

## 우리 모두가 도반으로서 죽는다 산다 하는 걸 떠나서

겠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점도 없는 가운데, 우  
뚝 솟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 가운데 진자  
사람이 있느니라 이런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하자  
면, 그러니만큼 선과 학을 들로 보서는 절대 안 되  
죠. 내 몸과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과 또 는  
나의 마음까지 이전과 어찌 들어겠습니까? 모두  
가 들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신도님들 중에서 자신들이  
알고 가겠지만 삼분의 일은 임신이 되었다고 보  
입니다. 한 달 임신된 사람, 두 달 임신된 사람, 석 달  
임신된 사람, 넷 달 임신된 사람, 다섯 달, 일곱 여  
덱 달, 또 갖 낳아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낳았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깨달  
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서  
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내가 공부를 해서, 죽 어  
린애 생산했다면 정신계의 생산인데 생산을 했다  
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억겁을 거  
쳐 나오면서 습성과 습기가 대변에 벗어지지 않  
습니다. 그저 이따금씩 튀어나오고, 아무리 자기  
를 깨달아서 어린애 낳았다 하더라도 그 어린애  
가 완전히 자라기 전에는 습기가 있습니다. 습  
이 있고 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성과 습성을  
몰라 녹이기 이전에는 절대로 전체의 열쇠가 주  
어지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을 가만히 볼 때에 그런 단  
계의 차원은 있으니 그저 조금 감응이 되고 뺨속  
에서 어린애가 노는 증세가 나와서 감응이 되고,  
9개월 됐으면 이거 틀림없이 임신은 했다는 걸 자  
신들이 알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던  
나와 현재에 사는 내가 상봉을 못한다면 그 줄을  
잡고서 정신세계의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줄을 잡지 않는다면 전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봐  
도 본 게 아니고 그저 50% 물질세계에서만 뺨글

름 자유로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꼭 칼을 뺐으면 칼을 뒤아서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깨어서 굴릴 수 있어야  
만이 된다고 봅니다.  
하어튼 우리 스님네들도 지금 9개월째 된 사람  
도 있고, 8개월째 된 사람도 있고, 7개월째 된 사  
람도 있고 또는 갖 낳아서 기르고 있는 사람도 있  
습니다. 스님네들도 모두, 즉 말하자면 내 제자다  
하기 이전에 모두 여러분과 같은 도반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도반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꼭 생  
명을 걸고, 죽는다 산다 하는 걸 떠나서 그걸 걸고  
아예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죽  
는다 산다를 떠나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  
고 무서울 것도 없고, 거부감을 일으킬 것도 없고  
번뇌 망상이다 할 것도 없고 그냥 치고 넘어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어인가 내가 살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몸이 없으면 내가 공부를  
못하겠다는 생각, 이러한 문제, 관습이나 습성이  
그냥 어느 때고 술술 나오기 때문에 넘어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잘못되고 이  
거를 따지려고 이런 공부 하는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거를 따지려고 이런 공부 하는 것도 아닙니  
다. 죽고 사는 게 들이 아니라면, 달과 해가 들이  
아니라면, 여자 남자가 들이 아니라면, 정신과 육  
신이 들이 아니라면 어찌 그것을 따지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죠. 중을 한번 치고 싶어  
서 새벽에 무럭없이 내리니까, 아침 중생을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바탕 때려박더니 그  
냥 모두들 마구니까 쇠약하고 그러면서 여기 뒷  
덜미를 쥐어서 내쫓습니다. 그래 그날 비가 억수  
같이 쏟아졌는데 매패모자를 쓰고서 풀숲에 가서  
앉았더니 어떻게 비가 쏟아지는지 그 매패모자가

#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순응하고 돌아가야

23면에서 계속

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 시킨다 할 때에 거기서 시킨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 거기서 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린애를 낳아도 어머니로서 대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고 이렇게 사는 데 대해서 어떤 게 시대에 맞게 옳은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자제해야 됩니다. '아!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합류화시키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단련을 시키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하고 거기다 되놓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안팎이 옳다. 이익하게 한다. 무조건 이익하게 하고 모든 것을 묻어 없는 문으로 이끌어가는 거. 또는 길이 없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 힘이 없이 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 먹은 사이 없이 먹는 도리로 이끌어가는 거. 또 상단에 공양미를 올려놓고 그것을 내려먹는, 자기 밥 내려먹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 이러한 도리를 할 때는 응당히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그 줄을 잡고 공부하는 거니깐요.

이런 신도 한 분이 있었습시다. 호박 넣물이 여기 주욱 있는데 애호박이 이쁘게 열렸거든요. 그런데 나가다보니 주인공이 그거를 따가지고 가자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발견이 되기는 했는데 맞습니다. 하하하. 그 마음의 습이, 관습과 욕심 집투가 그냥 두루뭉스러워있는데 그게 뭉쳐서 앞을 탁 가리고 거기에서 자꾸 습성이 나오는 것을 그림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그래 따가지고 가란다고 따가지고 가니깐, '왜 그걸 따느냐,' 고 하니깐 주인공이 그렇게 따가라고 그랬다 이거야. 하하하.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뭘 노릇입니까?

이게 바로 착 관습, 습성, 욕심, 악의가 들어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놓아버리면 그러한 문제가 나온다고 이거죠. '나가서 줌을 취라.' 이리다 하더라도 히! 심국이 웃고 '아, 나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고서 거기다 되놓고 심국이 웃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호박을 따가지고 가란다고 따가지고 가니 벌써 그렇게 하면 누가 되는 건데 그걸 잊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테스트하는 거죠. 따가지고 가나. 그렇지 않으면 '이러하면 안 되잖아?' 하고서 거기다 도로 놓나 이거 보느라고 그런 건데 고만 속았죠.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공부하려면 자기 선장이 자기를 다스려서 자꾸 거기다가, 좋은 것도 거기다 놓고 안좋은 것도 거기다 놓고, 잘못 나가게 하는 것도 거기서 잘못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테스트해보려고 그러는 걸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다 확고하게 숙지 말고 해아반이 부처님께서 "나는 행복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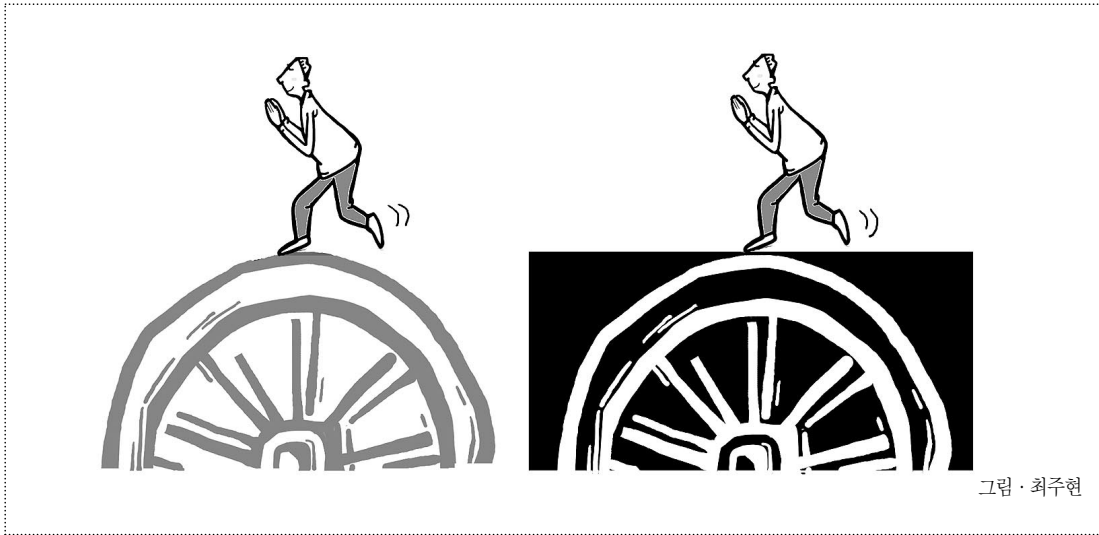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칼을 뺐으면 칼을 닦아서 하늘을 꿰어서 굴릴 수 있어야

받았다.' 하는 그런 뜻과 똑같은 게 됩니다. 마구니가 나오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마음을 어떠한 습성으로 쓰나, 넓게 쓰나 좁게 쓰나 또는 관습으로써 욕심으로써 습관으로써 쓰나 안 쓰나, 그거 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구니가 나오든 신장이 나오든 미더가 나오든, 어떤 게 나오든 용도에 따라서 다 그냥 다 그 속에서 나온다고 하고 그 속에서 그렇게 하는 순간 벌써 화(化)해서 나왔던 게 다시 원 자리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행복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행복받았다고 할 땐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얘깁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이 토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한 번 삼키고 바다를 다시 토해줄 때 증생들을 건넌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대중 공부하는 그 과정에도 그러한 일이 그렇게 많으니 실수하지 말고 속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런 그렇고, 지금 어떠한 감응이 돼서, 지금 뜻으로 이렇게 감응이 되는 사람이 있고, 뜻으로 확실히 감응이 돼서 완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대로 지금 기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 대중 스님 쪽을 가리키시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조그맣고 조그맣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낳아서 있으니까 조

그맣다고 하겠죠? 조그맣 거 하나도 없습시다.

여러분이 그저 어린애라도, 스님네들이 나이가 적어서 어린애라도 바로 부처님으로 보실 수 있다면 바로 자기가 부처입니다. 이 도리를 상세히 알아야지 무시하고 뭐 열불을 제대로 못하니깐 뭐 어찌구, 이거는 뭐 어찌구, 아직도 멀었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산중에 올라가서 돌에다가 물을 떠놓고 정성을 들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돌이 무슨 말을 하고 돌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렇게 돌에다가 하겠습니까? 돌도 생명이고 돌도 부처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올바른 길로 올바른 역할을 받아서 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리를 확실히, 물에서는 용신으로서 한마음이 돼주고, 돌에서는 또 돌에서 한마음이 돼주고, 허공에선 허공대로 한마음이 돼주고, 은하계에선 은하계대로 한마음이 돼서 수천 은하계를 다 한마음으로 보필하면서 나가는 것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 은하계를 대처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요새 시체말로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서는 불바퀴라고 했죠.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냥 앞아들을 수 있죠. 블랙홀이라고 안 그래도 그냥 큰 별이라고 하는 소리가 그냥 그 불바퀴라고 하는 거나 같죠. 불바퀴가 생산처기 때문에 불바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바퀴, 불바퀴, 수레바퀴를 잘 얘기하는데 수레라는 뜻을 가진 거는 굴임없이 돌아가는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나가나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밤과 낮이 갈라서 들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레라고 했죠. 수레로 이름을 방편으로 쓴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들이 있길랑은 내놔 봐라. 답답한 마음, 욕심나는 마음, 관습의 마음, 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마음이 있길랑은 내놔 봐라. 이 세상에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실 사이가 없건만 어찌 거기에 먼지 물을 자리가 있다더냐. 네 마음도 그러하거니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나니라. 그런데 그 마음자리에 어찌 먼지 없을 자리가 있다더냐."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지어가지고 그냥, 여기 스님네들도 이렇게 앉아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벌써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도량에서도 그렇고, 그냥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아이구, 저 사람은 왜, 저 스님은 나를 가지고 왜 저렇게 미워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러나 미워하던 안 미워하던 그제 문제가 아니죠. 미워하는 그 소리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자기한테서부터 온 거라,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그 모든

것을 순응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옳은 자리를 아주 그냥 금방적으로 만들어놓는 자리가 되겠죠. 움직여지지도 않는 자리.

하어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가는 거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오는 거 막지도 말고 어떠한 용도든지, 상대방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밭에 불 그런 사이가 없습니다. 이쁘고 밍고 이런 사이가 없다고요. 그림 사이가 없다고요. 지금 문 없는 문으로 그냥, 죽고 사는 거를 다 걸고 넘어가는 판국에 그렇게 빨리, 빛보다 더 빨리 들어가는 판국에, 빛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 판국에 무엇이 거기 걸리고 거기 뭐가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요? 먹기 위해서요?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예요. 사람되기 위해서요. 허허허, 하어튼 양면을 다 놓지 않다면 그 가운데서 불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것이 전자와 전자 줄을 갖다가 딱 이어놓으면 불이 아온다면 그 이어놓은 자체는 바로 이 집과 같죠.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 불 들어오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항상 밝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살던 나와 현재에 사는 내가 돌이 상봉을 못하면 입신이 될 수가 없고, 입신이 안 되면 어린애를 낳을 수가 없고, 어린애를 낳지 않는다면 어린애를 기를 수도 없고, 어린애를 기르지 않는다면 사람 될 수가 없고,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자유인이 될 수가 없죠.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아니 세세생생의 모습을 이걸로 저걸로 요걸로 그냥 바뀔꺼라서 한발도 빠지지 못하고 그런다면 자기 증생도 건지지 못해요.

여러분이 기어코 기어코 '히!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죽는 거야 상관이 없다!' 하고 털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살려달라고 온다면 그 자체를 볼 때 너무 답답해요. 살려주고 죽여주고 이런 양면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냥 딱을 만든다면 '살고 죽는 게 어디 따로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제 몸을 제가 간수하지 않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제 몸을 제가 간수하겠죠! 겹테기가 겹테기를 간수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간수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겹테기를 간수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집을 사서 사는 데 집이 무너진다 이럴 때는 주인이 집을 간수하죠? 그 집 겹테기가 무너진 겹테기를 고쳐낼 수 있었습니까? 제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꺾지 못하듯, 우리는 그 도리를 완전히 터득하기 위해서는 꼭 입신을 해서 어린애를 낳아야 합니다! 어린애를 낳아서 어린애를 잘 키워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80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 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離苦得樂을 설하신  
부처님의 날을 맞이하며**

옥천범음대학 교직원 일동  
옥천범음대학 재학생 일동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옥천범음대학

TEL 02)392-3234 / FAX 02)393-9450  
http://www.yeongsanjae.or.kr

**승복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동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 (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70,000
3. 마(국내산 역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4. 면 : 풀 안해도 뒀 (역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5. 울 · 모시론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 250,000
7. 가사	다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8. 신도용 조끼 · 바지 (모직 황도 역물염색)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9-438-0108

**아름승복**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심아파트 주차장 내)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 **山寺 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 **山寺 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 **山寺 조청** 은 한의사 이기용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전문을 받습니다.
- ❖ **山寺 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성과 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웃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옷 조청**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용, 혈양, 원기회복등에 기여** 1.2kg

**山寺 청미래 조청**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종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1.2kg

**山寺 기청량 조청**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1.2kg

**山寺 약도라지 조청**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르몬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1.2kg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372-5721**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회)

당신의 맑은 피부를 위한 **청정생기세심비누**

특 히 : 제0482418호(식약청 허가제품)  
발명자 : 김지문

- ❖ 성분 : 천연진주가루, 콜라겐, 카마모일, 구기자, 당귀 등 천연생약 10여종 및 팜유와 라벤다 천연오일향
- ❖ 효능 : 피부에 무자극으로 보습효과와 항균성 뛰어난,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기미, 각질제거, 발바닥 갈라짐 방지, 피부알레르기, 두피(탈모방지), 세안 및 미백효과 탁월하며 청정한 생기력은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 제조원 : (주)海仁우리  
■ 100g × 4개 1Box 42,000원  
■ 전 화 : 054)372-3166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회)  
\* 청정생기 세심비누를 꾸준히 사용하시면 피부가 맑고 젊어집니다.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